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6)

- 읽을 말씀 마 5:48, 고전 2: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온전한 자들” 을 성숙한 자로 보는 것이 틀린 해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자들” 이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는 해석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㉞ 온전한 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많은 학자들이 “온전한 자들” (고전 2:6)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들의 견해가 맞는지 실제로 온전한 자들을 뜻한다는 저의 견해가 옳은지 제대로 분별하려면, 다음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2장 6절의 ‘우리’ 는 누구인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고전 2:6)”에서 “우리”에 대한 해석에는 사도들을 뜻한다는 견해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는 “온전한 자들” 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1-5절에서는 ‘나’ 와 ‘너희’ 를 사용하다가 6절에서 ‘우리’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 바울과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 는 6절 후반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불린 그리스도 즉 복음과 관계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12절에 “우리가 …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2절과 대조를 이루는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 를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 앞의 “너희” (1-5절)와 구분되고, 3장 1-2절에서도 “우리” 즉 “온전한 자” 와 동의어인 “신령한 자” 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그

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 6절에 나오는 “지혜” 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9절)으로,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10절).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10절)는 것은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해주신 것과 더욱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과도 관계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2-14)**”라는 약속을 사도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9-10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9-10절은 사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도 당연히 사도들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10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12b절)**” 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0절처럼 12절도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 가 사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하다가도, 12절에 대한 설명에서는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 전체의 문맥에 주의하면서 13-16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전 2:13 “a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b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c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했고, 6절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고 온전한 자들은 그것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원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6절의 표현과 함께 반복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는 것은 설교를 뜻합니다. 또, 이 구절 안에 “말한다” 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증거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전반절(a)은 다른 이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설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반절(b)은 성령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도들이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성도들은 듣고 배웁니다. 후반절(c)의 “분별”의 원어 ‘신크리노’는 ‘비교하다, 해석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역본들이 “설명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일 즉,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성도들이 아닌 사도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설교를 뜻하고 이 구절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고전 2:14-1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14).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15).”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뜻하고, 신자들은 그들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15절)를 모든 신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6절의 “지혜”는 단지 복음이 아니라 더 심화된 복음과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신령한 자, 어린아이, 불신자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고전 3:1-2 참조).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인 것은 맞지만 신령한 자는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혜”는 불신자뿐 아니라 신령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14절)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가르침에 대한 반응과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15절)는 사도들입니다.

또한, “분별(14절)”과 “판단(15절)”도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은 원어가 같으나, 다르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가능해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 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들(불신자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고전 2: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은 9-15절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

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6절도 성령님을 통해 복음과 진리에 대한 특별계시를 받은 사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16절의 “우리” 라는 단어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6절부터 ‘나’ 에서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3장의 ‘나’ 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 ‘우리’ 는 6절과 같은 ‘우리’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한편, 저의 견해에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2-3장에 보면 “우리” 는 사도들을 뜻하고, “너희” 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확실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영광” 은 사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 위한 것)과 12b절(“은혜” 는 사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의 “우리” 에는 사도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2장에서는 주로 사도들을 뜻합니다. 그렇더라도 2장의 ‘우리’ 가 누구를 뜻하는지는 문맥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 는 사도들을 뜻하지만, 7절과 12b절의 ‘우리’ 는 예외적으로 바울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분과 해석은 성경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장 1절의 신령한 자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2장은 사도들을, 3장은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의 “신령한 자” 는 ‘주격 남성 단수’ 로, 바울이 “우리” 즉 사도들에 대해 말하다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3장 1절의 “신령한 자들” 은 ‘여격 남성 복수’ 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여러 온전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각각 사도와 온전케 된 성도들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6절의 “우리” 는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절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우리(고전 2:6)” 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을 뜻합니다. 성경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씩씩하는지 돌아보고,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변화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